

방석종 교수의 「성서적인 관점에서 본 단군사화 이해」에 대한 논평
(고조선 단군학회 66회 학술 발표 논문)

한규준 목사(새샘교회)

2016년 11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고조선 단군학회 주최로 동국대학교 도서관(다향관 학술세미나실로 예정되었다가 음향기기 사정으로 변경)에서 “고조선의 사상과 문화 2”라는 주제로 열렸다. 제 1부 발표회에서는 「비교연구를 통해 본 고구려 갑옷에 보이는 고조선 갑옷 특징」 주제로 박선희(상명대)의 발표와 박아림(숙명여대)의 토론, 「성서관점에서 본 단군사화」 주제로 방석종(감신대)의 발표와 김미선(독일괴팅엔대)의 토론, 「요도(堯都) 평양(平陽)과 단군조선-산서성 임분시(臨汾市) 도사유지(陶寺遺址)를 중심으로」 주제로 우실하(항공대)의 발표와 유태용(서해문화재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2부 발표에서는 「낙랑군 호구부 진위 고찰」 주제로 김종서(역사모) 발표와 윤용구(인천도시공사)의 토론, 「고대 두류 재배의 양상과 소비의 실제」 주제로 박유미(상명대) 발표와 안정윤(국립민속박물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모든 발표 내용이 제각기 다른 내용인 것 같으나 여기에는 한국고대사의 재발견과 그동안 신화처럼 여겨왔던 민족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상을 제시하므로 대한민국이 지표로 삼고 나가야 할 역사의식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본인은 방석종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만 논평해보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연구되어왔던 몇 가지가 신학화 되고 정리된 듯 느낌이 든다.

- 1) 단군사화의 환인 하느님을 구약성경의 엘, 엘로힘, 야훼와 일치시킴으로 인류의 유일신 보편적인 지고신(至高神)으로 신학화한 점.
- 2) 단군신화를 성서역사비평 방법에 의해 단군사화로 해석하여 환웅을 환인 하나님의 소명 받은 지도자로 역사화하여 구약성경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나 예언자의 소명과 일치시킨 것.
- 3) 환웅과 웅녀와 결혼관계가 가현(假現)이 아닌 가화(假化)임을 주목하여 신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 하느님의 아들이 토착민 웅녀(한민족)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하여 신학화한 점.

4) 단군사화의 환웅의 5부 통치체제(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해석을 군사가 빠진 예수의 제자단, 솔로몬의 통치를 비교하므로 한민족의 이상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상 몇 가지 내용은 토론자 김미선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약 역사비평방법에서 사용하는 어의 분석, 문학비평을 적용한 것, 기독교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계시 서두 공식, 양자 표현 공식 등을 단군사화에 적용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며 지적한 것 등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석중 교수의 단군사화 연구는 이미 단군학회나 기타 강연과 글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왔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관심과 학자들의 편견으로 그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신학연구가 독일 등 서구에서는 기초 및 근본학문으로 인정받고 학문간 연구 내용의 상호교류가 자연스럽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학술발표에서 방석중 교수의 연구는 한민족의 도도한 정신사의 맥을 짚어줌으로 다른 역사연구자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이러한 기회가 반복되면 될수록 민족의 성전(聖典) 단군사화에 대한 역사의식은 보편화되어 마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과 출애굽사상이 뇌수에 적셔 저들의 역사를 이룬 것과 똑같은 기적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